

“비극의 역사 반복 안된다는 절박함 투영”

나주 출신 박선옥 시인 시집 출간
‘무등산’, 12·3 내란 모티브
무등산을 광주 시민으로 의인화
“후세들에 불법 계엄 알리고 싶어”



12·3 비상계엄은 우리 현대사에 또 다른 상흔과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무장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또렷이 각인됐다. 특히 80년 5월 참혹한 학살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박선옥 시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언어 도단의 시대가 도독처럼 왔다. 말문이 막히고 숨마저 막히는데 온갖 혀소리가 하늘을 찢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형색색 응원봉 흔들며 빛의 혁명으로 악귀를 물리쳤지만 천공을 짓는 더러운 소음은 여전하다”며 12·3과 이후의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기억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만 1년이 지나고, 새해도 2월 중순에 접어들지만 5·18의 아픈 시간을 통과해온 지역민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일상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광주정신’으로 대변되는 의로움이 아니었을까.

최근 박 시인이 펴낸 시집 ‘무등산’(평사리)은 12·3 계엄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집이다. ‘무등산’은



박선옥 시인

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건 데는 남도 출신 시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2부, 3부는 12·3 계엄 이후의 치유와 회복, 일상을 다룬 시들로 채워졌다”며 “4부는 5·18 광주항쟁이 오늘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숙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인은 “1982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늘 내면에는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

었다”며 “당시 무크지로 발행되던 ‘실천문학’의 첫 번째 시인으로 문단에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가 이번 시집을 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2·3 내란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5·18에 관한 연작시를 쓴 것은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오열하는 무등산’이라는 시는 무등산을 광주시민으로 의인화한 작품이다. 당시 비극을 지켜봤던 무등산의 오감을 빌어 “양민을 도륙하는 국가 폭력”을 명징하게 고발한다.

“맨손으로 길거리에 나았던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치르고/ 심지어는 도청 앞에서 애국가 소리에 맞춰/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까지 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양민을 도륙하는 국가 폭력 앞에서/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오열하는 무등산’ 중에서)

독자들은 특히 광주시민들은 12·3 계엄에서 80년 광주의 오월이 환기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운석열’이 ‘전두환’으로 치환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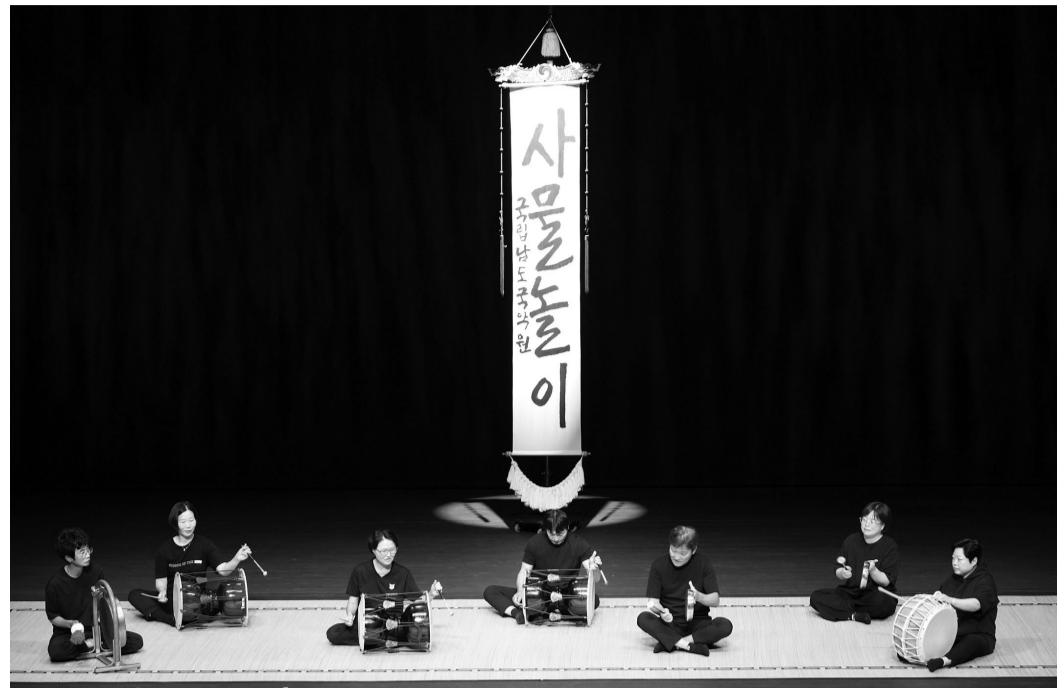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박 시인은 “우리 후세들에게 12·3 내란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싶었다”면서 “나아가 80년 광주 항쟁이 오늘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숙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인은 80년대 조진태, 이승철, 정삼수, 고규태, 김호균 시인들과 창작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시집 ‘다시 불러보는 벗들’, ‘세상의 출구’, ‘화색빛 베어지다’ 등과 동화집 ‘모나리자 누나와 하모니카’, 청소년소설 ‘고주몽: 고구려를 세우다’, 장편소설 ‘조선의 별빛: 젊은 날의 홍대용’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국악’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일반인 대상 4월~10월 국악문화학교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악학교가 문을 연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6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국악원 단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기 중심 수업을 진행하며, 전통음악의 기초부터 연주와 표현까지 단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국악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개설 과목은 가야금·아쟁·해금·대금 등 기악을 비롯해 사물놀이,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등 모두 7개다. 악기 연주와 소리, 춤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수강생은 관심과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과목별 모집 인원은 15명이며, 아장 과정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국악을 배우는 과정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수강료 청소년 5만원, 성인 10만원(가족 신청의 경우 20% 할인).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55명 창작 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7년 연속 선정

광주문화재단이 ‘2026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국비 지원 규모는 3억 5300만 원으로, 전국 운영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지역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직업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직무 영역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재단은 올해 기업·기관 11개소, 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직업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재단은 창작하고 기업·기관과 협업하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기관 및 예술인의 참



지난해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

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칭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접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면적(605.24㎢)의 약 86%, 국가면적(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이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서해안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산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래와 암반사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개펄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한갯벌 속의 모래갯벌

자연개발·고장개발·고장개발

자연개발·고장개발·고장개발